

민중문학 지도의 방향

文 聖 淑*

목 차

1. 서 언
2. 민중의 개념
3. 민중문학의 특징
4. 요약 및 전망

1. 서 언

민중문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이 땅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은 만만찮은 과제 중의 하나이다. '민중'이란 개념부터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논자에 따라 달리 규정되면서 이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건드릴수록 더나는 생채기처럼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외면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 민중문학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말고도 외부적 이유도 얽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민중이나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매우 민감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 선부른 진단을 내리는 데 주저되는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민중과 민중문학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표명해 왔다. 민중문학 논의에 관한 그간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민중이란 무엇인가라는 출발점의 논의에서부터 민중문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또는 민중문

* 제주대 교수.

학의 창작이나 이론 수립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논자들마다 주장과 이론에 갈래가 많아 가닥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런 선행 논의들을 통해 얻어진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민중과 민중문학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보고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전제해 두어야 할 것은 민중문학이 아마추어리즘이나 운동성의 성격을 띠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거나 혐오시 하려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민중문학 속에 비판받아야 할 요소가 들어 있다면 물론 과감히 척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반면에 민중문학 자체에 삶의 건강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 발굴해내는 노력이 요청된다.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가치가 담겨 있다면 그 가치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문학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론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옹호하거나 불온시하려는 시각은 그 어느 쪽도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민중과 민중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개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논의의 폭을 확대해 보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이다. 나아가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씌어지는 것이다.

2. 민중의 개념

민중이란 무엇인가. 또 그것은 '대중'이란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개념에서부터 특징에 이르기까지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실체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다. 먼저 민중을 농업사회의 산물로, 대중을 산업사회의 산물¹⁾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다. 민중은 '역사 개혁의 능동적 의지를 위한 적극적 가치'이며 대중은 '산업사회의 수동적 향수충'이라는 것이다. 민중과 대중의 개념을 농업사회 또는 근대 산업사회와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관점은 일단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민중을 하나의 가치개념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

1) 김주연 편,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1981, p.15 참조

민중문화 지도의 방향

다. 뿐만 아니라 대중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는 태도도, 그것을 계층내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구나 민중을 '지식인의 관념'이며 '올바른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자기 반성의 그림자'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민중을 가치나 방법, 정신 등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관념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민중'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 보기로 하자. 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 극복해내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개념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려고 했던 데에 있다고 본다. 많은 논자들이 구체화한 개념으로 민중을 형상화하려는 하는 데에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중을 가리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소수의 지식인'²⁾으로 범주를 설정하는 것일 것이다. 이 정의는 계층이나 계급의 범주 내에서 민중의 정체를 찾아내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 개념을 따르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그에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소수의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민중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 계층이나 계급에서 제외된 사람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중'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타내려는 시도 때문이다. 계층이나 계급의 범주 속에서 민중을 파악하려고 할 때 그것은 또 하나의 계층이나 계급을 만들어 내는 일일 수밖에 없다.

또 논자에 따라 광범위한 대중이라고 하거나, 소수에 의해 억압받는 다수, 또는 오랫동안 정치의 객체였지만 정치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될 다수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 견해를 따르면 일단 계층이나 계급의 범주는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대중' 또는 '다수' 등의 개념 자체가 지니는 의미혼란과 애매성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립하기는 했어도, 논자가 선명하지 못해서 명확한 실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에게 민중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가 떠오르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만 결과를 낳고 있다.

민중이란 어디까지나 계층이나 계급의 범주를 벗어나는 추상적이고 불가시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적어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념으로 나타내 보일 수 없다는

2) 성민엽 편, 『민중문화론』, 문학과지성사, 1984, p.166 참조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 물질적 형이하학적 개념이 아니라 의식과 정신차원이며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본래부터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속성을 지니는 개념을 구체적 가시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하려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민중을 다시 정의해 보자. 민중은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킬 의지와 행동의 주체로서의 인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계층이나 계급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며,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하려는 데서 나온 개념이다. 자유, 평등, 정의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보편적 가치이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아야 할 개인의 권리이다. 부여된 가치와 권리를 지키고 옹호하려는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중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의지를 갖는다면 그는 민중이 될 수 있다. 그 개념 자체가 계층이나 계급 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리에 있다. 거기에는 신분이나 직업, 경제적인 기준이나 척도가 개재될 수 없게 된다. 다만 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며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야말로 민중이 될 자격이 없다. 혼한 말로 그는 민중의 적이 된다.

이 때 '적'이란 어휘도 정확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민중을 계층이나 계급의 범주로 파악하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 '적' 개념이다. 적이란 긴장과 갈등, 그리고 대결의 상징이다. 그렇게 되면 적이란 '적대시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민중이란 개념 자체를 불온시·혐오시하려는 일부의 시각이 있는 것도, 바로 갈등과 대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민중의 올바른 의미는 변질되거나 왜곡되어 버린다. 민중이란 본래부터 누구를 적대시하거나 타도하자는 세력이 결코 아니다. 적대시하려는 자세 자체가 지극히 비민중적 태도이다. 민중이란 오히려 민중의 범주 밖에 벗어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민중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데에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우리가 민중적 또는 비민중적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서 마련되는 것인가.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분이나 직업, 경제적 빈부에 따르는 것인가.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비민중적인 사람은 절대로 민중이 될 수 없

민중문학 지도의 방향

게 된다. 신분이나 직업 경제적 부를 포기하지 않은 한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비민중적인 사람도 민중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민중적이라면 그는 민중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민중의식이란 용어도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 평등, 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존재들도 타도하거나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민중적 관점에서 사고와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권유해야 할 대상이다. 이른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특권의식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민중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민중문학이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특권의식에 대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도 그 궁극적 목표가 자유,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정신 때문이다.

민중을 운위할 때 운동성과 공격성이란 말이 자주 거론된다. 운동성은 민중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몽, 설득,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설득하고 포용하기 위한 운동성의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온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민중의 개념과 속성은 어느 누구를 타도하거나 배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 평등, 정의 실현을 위해서 누구든지, 심지어 적대시하는 대상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운동성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다.

공격성이란 원래 운동성과는 달리 배제와 파괴의 의미가 더 크다. 그러나 민중문학에서의 공격성이란 그런 배제와 파괴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비민중적인 개인과 집단 끈, 권위주의와 특권의식 등에 집착하는 세력에 대해 민중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지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격성은 의미를 지닌다. 이를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 쫓아서 어떤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방해물을 타도·말살하려는 성질이나 행동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을 포기하고 민중의 정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려는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민중의 '적'이란 개념도 여기서는 공격과 파괴보다는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동성과 공격성은 모든 비민중적 행태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정신이며 의식의 차원이어야 한다. 특정인이나 집단을 배제하려는 행동 자체가 비민중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해야 할 존재가 그에 위배되는 행동양식

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비민중적 행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통념에 따르면 계층을 분류할 때 그 기준을 '출신가문, 교육의 정도, 생계의 수단'을 들기도 한다. 출신가문이란 기준은 신분제가 사라진 이 시대에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 나머지 학력과 직업 두 기준은 나름대로 유효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따라 민중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계층 내 존재가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민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 계층 상승을 하면 그는 비민중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 계층이나 계급 갈등으로 말미암아 타도나 배제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모순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바로 민중을 계층 내 존재로 파악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특정인이 계층 상승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한 그는 민중이며, 건강한 정신과 사고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이 가설이야말로 민중의 개념을 계층내 존재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

민중의 개념을 계층내 존재로 파악하려는 관점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민중에 속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에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 개념 속에는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그것을 해소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정신이 기본 원리로 나타나야 한다. 개인과 집단의 분리가 아니라 융합이며, 집단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중의 진정한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3. 민중문학의 특징

일반적으로 문학과 예술을 '민중문학(예술), 대중문학(예술), 고급문학(예술)'³⁾의 삼분법으로 분류한다. 이 분류 체계는 창작 담당층 보다는 향수층인 독자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하나의 '이상적 유형'⁴⁾일 뿐이

3)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p.46 참조.

4) Hauser, A., *The Sociology of Art*(The Univ. Chicago press, 1985), p.558 참조.

민중문학 지도의 방향

며 민중문학과 대중문학 그리고 고급문학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 갈래의 경계가 뚜렷한 것이 아니라 서로 넘나드는 복합적인 의미층의 모습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민중문학은 그 자체에 대중문학이나 고급문학으로 불릴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대중문학이나 고급문학 쪽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 삼분법적 도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그것을 계층에 따라 '노동자 : 중산층 : 엘리트 계층'으로 구분하든, 외적 조건에 따라 '생산 : 분배 : 수용'으로 구분하든 아니면 교육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저 : 중 : 고' 등의 준거틀에 의해 '민중 : 대중 : 고급'이라는 서로로부터 소외된 세 개의 꼭지점으로된 삼각형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은 확실히 무리⁵⁾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우저나 박성봉의 논의에서도 문학의 분류를 계층이나 계급 내에서 명확히 구분하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민중문학, 대중문학, 고급문학 중에서 하나의 용어를 선택하여 그것을 꼬리표처럼 붙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학이나 고급문학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민중문학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싶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구분해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문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민중에 의해서 또는 민중을 위해서 씌어진 문학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때 우선 그것은 민중을 위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진정 민중을 위한 문학이며 예술인가. 이에 대해 '민중의 생활감정에 뿌리박은 문학', '민중의 감정 및 사상을 집약·순화함에 기여하는 문학'이며 '민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문학, 사랑을 받아 마땅한 문학⁶⁾'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견 막연하게 보이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배와 피지배, 위정자 세력과 백성이라는 이분법적 분류 체계에 익숙해 왔다. 이 이분법적 구조 속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관습과 행위규범까지를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장치가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지탱하는 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치야말로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정의와 자유

5) 박성봉, 앞의 책, p.48 참조

6) 성민엽, 앞의 책, p.154

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고, 평등의 이름으로 불평등 구조가 강화되었던 역작용도 빚어 왔던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운위하지 않더라도, 모든 개인은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집단이나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정의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또 인종적 편견이나 남녀, 반상 등에 따라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세계 도처에 흔한 것이 사실이다.

민중문학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은 바로 부당하게 침해받는 정의와 자유를 침해당하기 이전의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불평등 구조를 깨뜨려 개선하는 데에 있다. 그런 점에서 '민중문학도 모든 인간의 진정한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문학'이라고 정의해야 될 것이다. 그 의지를 실현시키는 일을 '민중'으로서가 아니라 '문학'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렇다고 법적·제도적 장치나 인간의 행위규범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자유를 속박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며, 정의를 침해하는 구조나 장치들을 하나씩 고치고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지배자의 논리가 아니라 피지배자, 백성의 관점에서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옹호하는 장치나 규범으로 새롭게 뜯어고치는데 있다. 그리하여 그런 구조나 장치 자체가 없어도 되는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민중문학이 추구하는 근본 목표라 할 수 있다. 지배자나 위정자를 없애자는 의도가 아니라 지배의 방식, 위정의 자세를 바르게 하자는 데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 정치적인 인간에게 있어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와 질서는 어느 시대에나 있게 마련이다. 그런 구조나 질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을 추구하며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조와 질서로 재편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지배자나 위정자도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킬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그가 바로 민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역할을 문학이 담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중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스토우 부인(H. B. Stowe, 1811~1896)이 쓴 「*Uncle Tom's cabin*」(1852)은 미국 사회에서 노예제도가 끼치는 해악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만민평등 사상을 제창한 작품이다. 흑인 노예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노예해방론을 공론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결국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해

민중문학 지도의 방향

방이라는 공동체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것이다. 부당하게 억압받는 인간의 부자유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데에 문학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예해방과 인류평등 사상을 구현한 그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민중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중문학이 문학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항상 '민중'보다 '문학'에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문학보다 민중에 무게 중심이 두어질 때 그것은 언제나 예술성보다는 정치성이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문학이 문학으로써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화가 되는 것이다. 대결을 강조하거나 계층 갈등 등을 그려낸 공격적인 글들이 대부분 이에 속한다고 보아진다. 대결을 강조하는 문학은 1920년대 프로 문학과 같은 성질의 것이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프로 계열의 문학과 민중문학은 그 동기나 목적 등 의도하는 바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그런 유형의 글들은 문학이 아니라, 선전문구이거나 한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호에 그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만일 그런 유형의 글을 가지고 민중문학이라고 한다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또 하나의 비민중적 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민중문학이라는 이름아래 문학보다 민중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오지나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 민중문학을 두고 문학성 우선이나 정치성 우선이라는 다름은 지극히 비민중적 행태일 수밖에 없다. 민중문학도 진정한 문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문학다워야 한다. 문학이 문학다워야 한다는 명제는 지극히 상식선의 이야기이다. 문학답지 않고 다른 어떤 것과 유사성을 띤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문학으로 볼 수 없다. 문학 아닌 것을 가지고 문학으로 운위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학으로서 떳떳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중'보다 '문학'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럴 때만이 민중문학은 본래의 의미와 생명력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민중문학은 갈등의 증폭보다는 화합과 포용의 원리로 생성되어야 한다. 자유, 평등, 정의가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짐을 토대로 공동체적 삶의 실현을 그 기본 정신으로 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한 삶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집시키는 원리가 구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긴장과 갈등의 개재되거나 대결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중문학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민중문학이라는 미명하에 씌어지는 일부 작품들 중에서는 작위적이며 조작적인 것들도 많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를테면 시인이나 작가의 분노와 증오에 찬 시선과 목소리가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예를 종종 보게 된다. 시인이나 작가가 독자보다 먼저 흥분하고 감정의 격동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민중문학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중문학을 불온시·혐오시하게 되고 따라서 민중문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인이나 작가는 사물을 지극히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 독자는 시인이나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자유, 평등, 정의를 왜곡시키고 그 실현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작품 속에서 읽으면서 분노하고 비분강개하며 바로잡으려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시인이나 작가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분노와 울분은 작품 속에 은폐시켜야 하고, 독자는 독서과정에서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행동화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민중문학은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타개하거나 개혁할 수 있도록 행동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중들로 하여금 민중의 처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행동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이어서는 안된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민중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비민중적 행위를 통해서 민중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해도, 진정한 항구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왜곡되고 조작되어 있는 현실 고수가 아니라 타개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정의 구현을 위한 목적일 때만 정당한 것이다. 그 목적을 벗어나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게 된다.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민중문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자기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려는 배타적인 태도는 민중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은커녕 해악만 끼칠 뿐이다.

민중문학의 상대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학이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순한 기도가 숨어 있는 문학,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문학, 전체의 이름으로 인간의 개인적 정의와 권리를 침해하고 조작하려는 문학은 민중문학의 저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중문학 지도의 방향

그렇다면 이 민중문학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민중문학은 이 시대에 우연히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나 갈래가 아니다. 그 발생 연대를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학의 한 갈래이다. 민중문학이 역사적 시대적 산물임이 명백하다면 그 생성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논의하기 전에 잠시 눈을 돌려보기로 하자. 통념에 따르면 고대사회의 이념은 자기중심주의, 중세는 보편주의, 근대 이후는 민족주의 정신을 그 이념으로 한다. 자기중심주의에서 보편주의 이념으로 변화되면서 인간의 존재 질서는 지배자나 위정자 위주로 재편되었다.

서양은 기독교적 보편주의로, 동양은 주자학적 보편주의 이념으로 고정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위계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고착화되어 갔다. 그 결과 당대의 현실 속에서 지배자, 위정자의 논리가 불변하는 진리로 강요되는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보편주의 이념 속에서는 현실을 타개하거나 개혁하려는 모든 행위는 법이나 제도로 금기시 되었다. 문학도 당시 교회나 국가권력에 의해 주도되면서, 기존 질서를 강화하고 신성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중세의 강요된 금욕주의적 생활은 문학에서조차 교회의 공식적이며 가치 규범적인 진리를 준수하도록 만들게 되었다. 민중문학은 바로 중세 교회와 국가권력이 주도한 문학을 거부·반발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보편주의적 불변의 진리를 그대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나 질서, 권위와 규범, 금기 등이 정지되거나 부정되는 자리에 민중문학이 서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문학은 민중적 자각의 토대 위에서 고착화된 현실을 타개하고 초월·극복하도록 행동화를 유도하는 문학이다.

중세 이전의 문학 작품 속에서는 부당하게 침해받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정의로운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바로 잡는 내용이 많았다. 중세에 이르면 정의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의를 말살하는 부분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피지배자는 지배자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강요되었다. 이렇게 부당하게 억압받는 개인의 평등, 정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문학적 노력이 민중문학의 시초가 된다. 그러므로 이 세 요소가 보장되고 구현되는 사회에서는 민중문학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를 역으로 말한다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정의로우며 자유를 구가하는 사회에서는 민중문학이라는 이름조차 필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도 신라나 고려시대의 문학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금욕주의적 생활 모습을 담기보다는 웃음과 해학, 풍자의 기 반 위에서 인간의 본능적 사고와 행동, 금기파괴의 원리가 적나라하게 실현되어 있다. 고려시대 문학이 조선조에 이르러 많은 부분이 배제되었던 것도 바로 주자학적 보편주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주자학적 보편주의가 확립되고 고착화되면서 민중문학은 배태되었다. 판소리나 탈춤, 사설시조나 평민가사의 출현 등이 그것이다. 민간 미술인 민화나 민요 등 민간 음악의 출현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들테면 탈춤에 등장하는 ‘취발이’나 ‘말뚝이’들은 당대 현실 속에서는 부당하게 억압받는 존재들을 대표한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는 이른바 기성의 가치와 질서를 대표하는 ‘먹중, 노장, 양반’들을 여지없이 저그러뜨리고 패배하게 만들어 버린다. 부조리한 현실을 조롱하고, 유희적 표현과 욕설, 신명나는 웃음을 통한 해소 등 민중문학의 독자적인 법칙을 통해 지배자들을 자기들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통쾌감을 맛보게 한다. 자유, 정의, 평등의 원리가 구현되는 현장이다. 이들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기성의 질서나 가치체계를 옹호하려 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한다. 그 부정 위에 새로운 질서와 가치체계를 확립하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민중문학은 친체제적인 문학이 아니라 체제 부정적이며 반체제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무조건 불온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진정한 의미는 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며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체제를 부정하려 한다는 뜻에서 반체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자유를 옹호하고 평등을 추구하며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체제를 부정할 것인가.

4. 요약 및 전망

지금까지 민중과 민중문학에 대해 그 개념과 발생 배경, 특징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민중문학이 민감한 영역이라고 해서 금기시만 할 것이 아니라 문학의 영역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갈래의 확산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민중문학 작가들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 구현이라는 목

민중문화 지도의 방향

표를 창작을 통해 부단히 추구해야 한다. 반면에 독자들은 독서과정에서 그 참된 의미와 내용을 발견하고 의식의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식의 각성과 개혁을 통한 진정한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이야말로 민중문화이 나아가려는 진실로 가치 있는 길이다. 계층이나 계급 갈등을 초월하고자 하는 자리에 민중문학은 그 존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문학을 두고 단순히 현실부정론자나 회의론자들의 주장인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치적이든 아니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도덕주의자의 예술형태이어야 하며,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문학으로 그 위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민중문학의 정당한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다.

민중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예술성 확보 문제라는 것이다. 문학으로 살아남고 강한 생명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민중에 의해서 또는 민중을 위해 쓰여지는 문학이라고 해서 예술성이 없는 작품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민중문학에 대한 철학적 이론 정립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민중문학도 역사적 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와 시대에 대응하는 철학적 성찰과 이론 무장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론적 바탕이 마련되어야만 문학의 한 갈래로서 정당한 자리 매김을 받을 수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작품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